함께하면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성령강림후 둘째주일

성령충만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신 Pastor Bener Agtarap (Conference Superintendent) Pastor Debra Brady(Central Valley District Superintendent)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Constituting Church Conference

예배후 바로 이 자리에서 Constituting Church Confernce를 진행합니다. 한분도 빠지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실행위원회

다음주 6월4일(토)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실행위원은, 장로, 권사 여선 교회장, 남선교회장입니다.

4. 6월 행사안내

- 1) 6월12일(주일) 한의준 목사 설교(남가주 주님의 교회)
- 2) 6월22일(수)-24일(토): 칼네바다 연회 (샌프란시스코)
- 3) 차터링 인준식(6월25일-토)

5. 담임목사 일정

영성일기 세미나: 5월31일(화)-6월2일(목)-LA, 남가주 사랑의 교회

예배위원 안내 및 봉사자

	회중기도	성경봉독	점심봉사
05월29일	김현숙 집사	차석준 집사	최성보 김현덕 김형기
06월05일	한순옥 집사	홍윤기 권사	윤문섭 홍윤기 안광빈
06월12일	구자홍 집사	이용숙 집사	임동재 구자홍 차석준
06월19일	김형기 집사	차경미 집사	김현덕 안광빈 김형기
6월안내	이용숙 임경희	경희 6월촛불점화 차경미 차석준	



Fresno **후레스노** Korean 한인연합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1726 Pollasky Ave Clovis, CA 93612 (559) 299-0240 www. fkumc.net fkumc@fkumc.net

목회자칼럼

참 기독교인 되기

설교자의 말씀이 좋다는 말 보다는 은혜롭다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설교를 좋고 나쁘고를 구분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해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맞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좋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아마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좋다라는 표현을 썼을테니 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동안 부흥강사의 말씀은 늘 재밌었습니다. 탁월한 쇼맨쉽에 재미가 있을줄 모르지만, 생명력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등한시한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도 철저하게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주의해야하고 예배자들은 지금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담아내려고 노력해야합니다. 그러니, 좋았다는 표현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내가 그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는 표현일테니, 내게 은혜가 되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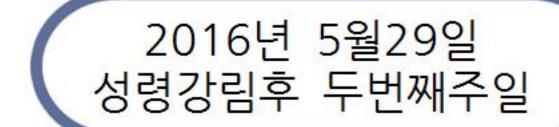
참 기독교인은 예배열심히 드리고, 십일조 잘내고, 기도열심히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참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은 어느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는 것보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극단적으로 치달았습니다. 형식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문제있고, 대충 처리해야할 것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대충 준비한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습에 말라기 선지자는 차라리 이럴바에는 성전문을 닫아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드리는 것보다 낮다고 생각하지만, 예배를 대충드릴 바에는 아예 성전을 닫아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기전에 우선해야할 것은 지금 내가 왜교회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가?를 물어야합니다.

지금보다 더 분주하고 어렵고 힘든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실하게 예배드 렸습니다. 우리를 매우 당당하게 만드는 분주함, 바뀐시대, 부담에서의 자유로움 등의 말은 결국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를 가볍게 여기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기왕 시작한 신앙생활, 하나님의 탁월한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이 더할날위 없는 기쁨에 있으시려면, 참 기독교인의 태도를 회복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을 회복해야합니다.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으로 살아가려는 결심이 우리를 풍요로운 신앙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Constituting Church Conference - 5월29일 주일 Partner in Ministry - 6월12일 한의준 목사설교 영성일기세미나 - 5월30일(월)-6월3일(금) LA Annual Conference - 6월22일(수)-6월25일(토) 벌링게임



かりとうなったからいい

<u> 기도와 나눔</u>



소개합니다



그분은 부활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우리는 예수님께 무릎 꿇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마땅하다.

(구멍 난 복음을 기워라) 박영철

그분이 진정으로 당신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2016년 5월29일 주일오후 12시30분

예배인도: 김규현 목사

입례찬양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경배와찬양 Praise &Worship	찬양팀	
•	입례송 Anthem	다함께	22장 (통26장)

고백

•	신앙고백 Confession	다함께	사도신경
•	영광송 Gloria Patri	다같이	3장
	기도 Prayer	김현숙 집사	

말씀선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차석준 집사	눅 5:11-32
설교 Sermon	Rev. Bener A	gtarap

어건생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What's in your heart?)

헌신과 나눔

	봉헌송 Offering	다함께	505장(통268장)
•	찬양 Hymn	다함께	1강
	교회소식 / Announcement	인도자	
	축도 / Benediciton	Rev. Debra Brady	

♣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예배안내

		*
새벽기도회	화-토 새벽 6시	바울서신 강해
수요성경공복	<u> </u>	예수님의 사람
	저녁7시30분	회의실
주일예배	1부: 오전08시30분 2부: 오후12시30분	교회력설교
토요아침성경공부 아침7시		예수님의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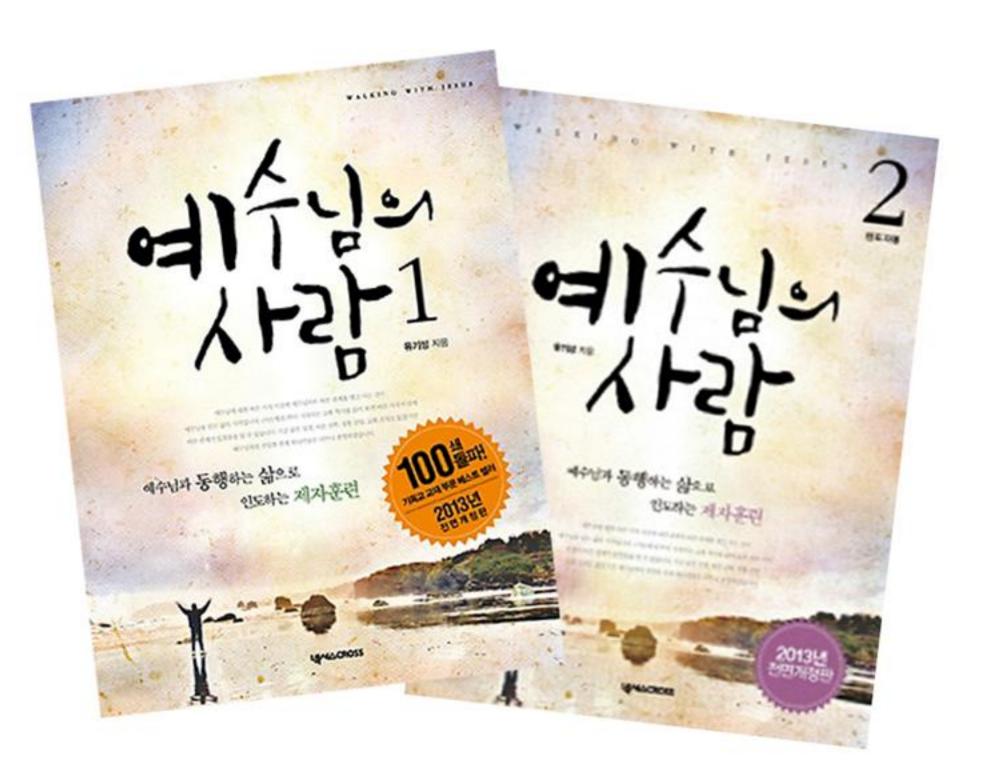
중보기도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 1. 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위해
- 2.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을 위하여
- 3.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 그리고 각 부서를 위해
- 4. 교회학교사역을 위해서
- 5. 질병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 6. 2016년 기도제목을 위해 (개인별)
- 7. 이용숙 집사의 빠른 회복을 위해
- 8. 부흥회와 차터링 진행을 위해
- 9. 최성보 집사 장인, 최주리아 아버지 심장수술을 회복을 위해

5월생일자

임경희 권사(5/4)

◈함께 나눌 기도제목은 알려주시면 새벽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016년 성경공부

여수님의 사람

지난주 헌금 통계

vs.			
주일헌금	정윤희 Jim Thomas 정용치 차석준 차경미		임수호
감사헌금	구자홍 구경숙 김형태 최미란 홍윤기 김의숙	나 임동재 임정원	^권 최승희
십일조	홍윤기 김의숙		
부흥회	정윤희 Jim Thomas 홍성철 홍윤기 김의숙	 임동재 임정원	정용치
속회헌금	2속	합계	\$2,094.00

Homeless Ministry-홈리스 사역 5/28/2016



6월 설교안내

주제: 성령

6월 5일 성령의 능력과 소망(롬 15:7-13)

6월19일 성령의 사람 (행 19:1-7)

6월26일 성령의 열매 (갈 5:16-24)

7월3일 성령의 교회 (행 2:36-47)

